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10.25.(제3776)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내 가까이 있는 사랑

사랑은

내 가까이 있다

순간의 삶에 짧은 만남 속에

흘러만 가는 시간이기에

언제나 막 피어올라

활짝 피어나는 사랑이고만 싶어진다

너를 보고 있으면 기뻐서 가슴이 뛰고

행복한 웃음이 터져 나오도록 좋다

내 가까이 있는 너를 사랑함이

내 삶의 전부이다

- 용혜원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22주
(종교개혁주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레 송... 64장(1,3절) ...다 같 이 ※영 광 송..... 4장 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례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경 배 찬 송..... 25장 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갈릴릴마다 주님보다 저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
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주님께 길을
맡기며 성도들과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 1번(시편 1편) ...다 같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아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

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 도.....이평식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현 금.....다 같 이

※봉 헌 송... 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분반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허상원 집사

구 약 | 시 편 133:1-3

신 약 | 요 한 복 음 17:1-3

찬 양... 너 예수께 ...찬 양 대
조용히 나가

증 언.....권오진 목사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복 의 선 언.....담임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목장모임

다음 주: 첫단추 기도회

젊은이예배

오후 2:00, 중예배당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32	영 아 부	9
주 일 2 부 예 배	255	유 치 부	13
주일실시간방송예배	40	유 초 등 부	23
목 장 모 임	.	중 · 고 등 부	19
수 요 성 서 연 구	52	청 년 부	8
수요실시간방송예배	14	예 수 소 망 반	26
금 요 성 령 집 회	48	생 명 의 삶	13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24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합 계	465	합 계	111

현 금			
주 일 현 금	1,567,000	감 사 현 금	4,690,000
교회학교현금	158,600	장 학 현 금	1,000,000
월 정 현 금	1,190,000	선 교 현 금	90,000
십 일 조	8,560,000	특 별 현 금	100,000
합 계 17,355,6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민수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히브리서 강해
오석만 목사

수요성서연구

10월 28일(수)10:30,송호준 전도사

어? 성경이 읽히지네!
신약 7과

본문:누가복음 24장 외

- 금 주 기 도 : 제8,9여선교회
- 다음주기도 : 평신도성경학교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박지연 전도사

방 학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초등부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10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김유임 윤희열	이호순 정미애 한애선 송대현 오수윤 전동순
안내위원	문정이	
강단헌화	(송재용 홍영기)	
수납위원	김동수 김명훈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이명근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세상을 비우고 예수로 채우다”

구 약 시 편 73:25-26

신 약 빌 립 보 서 3:3-9

설 교 : 권 오 진 목사

조성노 교수님이 쓰신 <믿음인가, 미신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또 직접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미신적인 요소를 지적한 책입니다.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옮겨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쯤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인지 미신인지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성도들을 보면 항상 미신적으로 믿더라고요. 그 게 성에 안 차고 못마땅했지만 또 한편으론 이해가 돼요. 우리 풍토가 미신적이니까요. 정한수 떠 놓고 치성 드리듯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행태가 성도들 안에도 만연하지요”

“믿음과 미신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이에요. 결국 미신은 대상을 알 필요가 없거든요. 미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소원’ 즉 ‘자기’예요. 대상이 아니지요. 미신은 어떻게든 치성을 드려 소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요. ‘천지신명’은 천지에 있는 모든 신이에요. 무슨 신이든 상관없으니 내 치성을 받고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대상이 중요하지요”

“기독교 신앙은 그 대상을 아주 성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주문하는 신앙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소신껏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치성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방법으로 신앙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단지 의식이나 제사에 참여하듯 예배를 드리고 내 소원을 빌기에 바쁘다면 그것은 자기 소신껏 신앙하는 ‘미신스러운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수님께서 믿음의 핵심을 잘 밝히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

식에 최우선을 두는 것이요, 미신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오직 나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가, 아니면 미신적인 믿음인가”

오늘 시편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73:25-26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게 있는 것, 내가 사모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 된다는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편기자의 고백처럼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바울의 신앙고백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요, 이 고백이 없으면 아직도 우리는 미신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영어성경을 보니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 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3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야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얇은 체험적인 얇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을 적용하고 또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체험적인 지식”이 바로 ‘그노시스’입니다.

이 안다는 성경적인 정의로부터 다음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온 삶의 체험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이미 메시야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에 관해서만 알았을 때는 오히려 그 지식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강한 빛으로, 생생한 음성으로, 그의 온 몸으로 체험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과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분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체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기도가 될 것이요, 그 체험에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될 것이며, 그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와 찬양과 간증이 더욱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7-9절을 보십시오.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위 말씀에서 두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얻는 것과 잃는 것입니다. gain vs. loss. 이 단어들은 원문상 경제적 용어입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이익이 나는 것과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예수님 알기 전과 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얻었다고 뽐 듯이 기뻐던 것이, 예수님을 얻고 보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전에 바울이 어땠는지 직접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4-6절입니다.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나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상적으로 신뢰할만한 수많은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 그분을 알게 되니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미신적인 믿음인지의 구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겨집니다, 미신적인 믿음은 내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청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청년은 모든 구약의 계명을 지킨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때 예수님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여 떠나가는 청년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나는 재물이 많이 없으니까 괜찮겠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자청년이 버

리지 못한 재물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위, 사회적인 지위, 세상적인 성공, 외모,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가장 귀한 것을 얻지 못할텐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청년이 돌아간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는 세상 것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다른 종교는 나의 노력으로 세상 것들을 비우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으로 세상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사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분이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십니다. 육체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들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주님을 얻고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의로움은 곧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로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10).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31)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믿고 또 다른 무엇인가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퍼센트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구원에는 99퍼센트의 믿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99퍼센트는 예수님을 믿고 1퍼센트 다른 것을 믿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100퍼센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알아가는 순간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만이 구원의 길이기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이 임하기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구원과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세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은 그것이 곧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이 제일 고귀한 분임을 고백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 금

십 일 조 헌 금 (이선균 차경연) (김기석 나영임) (김주인 김춘강) (이평식 김영숙) (조순형 백문희) (최태성 김지애) (황한규 유경희) 고광섭 (김정형 전자월) (김동수 전순남) (김문기 정건화) (김상길 정윤희) (김선옥 구용연) 박선례 성사은 여혜경 오금복 윤정환 이경희A 이윤선 (이정실 황문연) 이지혜B 이한나 임명숙 전동순 최소연 추화순

월 정 헌 금 송숙희 강정희A 김도현 (김준식 김민식) 김진숙 (김진우 한은숙 김카시아) 박정미 (이상환 최선규) (최은규 장미자) 홍연재

감 사 헌 금

(권오진 조고은) : 딸 하영이의 결혼식을 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김미광 : 故유재홍권사의 2주기에 자녀들과 함께 추도예배를 드리며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기순 : 인생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범택 윤옥희) :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서태희 : 그리아니하시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항상 간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조순형 백문희) : 온전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태성 김지애)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정희A :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손들 믿음의 삶과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아픔을 실족케 하지 않게 해주세요.

(강형욱 강성진) :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준석과 권하영의 결혼예식을 잘 마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문기 정건화) : 때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자 : 여호와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리나 딸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진숙 :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류기녀 : 비록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 보내주신 주보와 중보기도로 은혜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정화 :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성안 조삼순) :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감사, 감사드립니다.

유영순 :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서울 :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순희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영호 : 늘 찬양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장미자 :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춘기 : 주님의 큰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보균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 명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 학 헌 금 류한아

선 교 헌 금 오혜리 윤정환 (이정실 황문연)

특 별 헌 금 강단현화 (조순형 백문희) (김동수 전순남)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목장 모임 : 오늘 예배 후, 목장별로 있습니다.
- 목회계획 세미나 : 27일(화) 오전 10시 ~ 4시 서초방 주교회에서 있습니다.
- 제46회 서대문지방 평신도성경학교 : 11월 2일(월) ~ 5일(목), 창천교회에서 있으며, 3층 안내석에서 수료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 이스라엘아 들으라, 강사 : 신진섭목사 (현촌교회 담임), 오전반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 저녁반 월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특강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부임 심방 : (안현수 심수현)

■ 모임안내

- 한나목장 : 오늘 12시 40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 여선교회 월례기도회 :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중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여선교회 회장단회의 : 28일(수) 오후 12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11월 예배담당 :

주	주일		수	수요성서
	기도	성경봉독		
1	조상현	집례자	4	사경회
8	김수미	김재성B	11	최미숙
15	김영미	집례자	18	김현주
22	안홍순	오수윤	25	전순남
29	김기석	심수현		

- 11월 예배위원 :
성찬준비 : 안홍순 이평식
1부 안내위원 : 권효정 헌금위원 : 고순문 최경애
2부 헌금위원 : 추화순 최은주 강승균 장지희

■ 교우동정

- 감사 : 전도대를 후원해 주신 김춘강 장로께 감사드립니다.
- 교직원 휴가 : 이윤선 간사(10/27 ~ 11/3)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11월 중 행사

- 첫단추기도회 : 1일(주일) 오후 2시, 대예배당
- 세례예식 : 8일(주일) 오전 11시
- 목장모임 : 8일(주일), 22일(주일)
- 총목자모임 : 8일(주일)
- 추수감사 말씀축제 : 13일(금), 14일(토) 오후 7시, 15일(주일) 오후 2시
- 온세대에배 : 29일(주일) 오전 11시
- KOMKED와 함께 하는 미션콘서트 : 29일(주일) 오후 2시

■ 금요성령집회(10월 30일)

찬	양	교역자 찬양단
설	교	“믿음이 살 길입니다” (이사야 53:1-12) 권 오 진 목사

■ 주일아침예배(11월 1일)

대표기도	조상현 장로
------	--------

■ 주방봉사

- 이번 주 : 1초원
- 다음 주 : 3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로목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담임목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련목회자 송호준
- 전도사 박지연
- 교육전도사 서지수

- English Ministry Pastor Abraham Napitupulu
- 소속목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가지회 김정희 김병일
- 반주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